KIA 김종국 감독 "이의리, 제구 중요성 느꼈을 것"

WBC 대표팀 승선해 일본전 ⅓이닝 3볼넷 1탈삼진

"좋은 경험 했다 생각…다음에 뽑히면 더 잘할 것"

김종국 KIA 타이거즈 감독이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쓴맛을 본 이의리를 감싸안았다.

김 감독은 15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쏠 KBO 키움 히어로즈와 경기를 앞두고 이의리에 대해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의리는 2023 WBC 한국 야구대표팀에 승선했다. 그러나 이의리도, 대표팀도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의리는 지난 10일 일본과 경기에 구원 등판한 ⅓이닝 3볼넷 1탈삼진 무실점으로 진땀을 뺐다. 한국은 일본전 4-13 대패를 포함해 4패로 대회를 마쳤다.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이의리를 다독인 김 감독은 "힘으로 승부하는 것보다 제구가 안정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을 것이다. 선발 스타일이라 중간에서 쉽지 않았을 거다. 다음에 (대표팀에)뽑히면 더 잘할 것"이라고 힘을 실어줬다.

아픈 기억을 뒤로 하고 이제는 다시 시즌 준비에 집중해야 한다. 양현종, 이의리, 나성범 등 대표팀에 차출됐던 KIA 선수들은 이날 하루 휴식을 취하고 팀의 첫 홈경기인 18일부터 팀에 합류한다.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한 양현종과 이의리는 시즌을 대비해 투구수부터 끌어올려야 한다.

김 감독은 "투수코치와 상의를 해 투구수를 올려야 한다. 시범경기에 되도록 빠른 시점에 등판을 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슬비 기자

이강인의 드리블 빨라졌다

"클린스만 입맛에 딱 맞네"

스페인 프로축구 마요르카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22)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약점으로 꼽혔던 주력이 향상되면서 이강인의 공격력이 배가되고 있다.

이강인은 지난 12일 레알 소시에다드전에서 골을 터뜨렸다. 마요르카는 12일(한국시간) 스페인 마요르카의 에스타디 마요르카 손 모익스에서 열린 레알 소시에다드와 2022~23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홈경기에서 후반 5분 이강인의 동점골에 힘입어 1-1로 비겼다.

골키퍼 라이코비치가 골킥을 길게 올리자 동료 프랏츠가 머리로 떨궜다. 상대 수비가 공을 놓치자 이강인은 공을 따낸 뒤 드리블로 골키퍼까지 제치고 득점에 성공했다.

이 장면 외에도 이강인은 최근 들어 드리블 실력이 일취월장했음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역습 상황에서 드리블을 할 때 이강인의 속도가 공 없이 달리는 상대 수비수들을 넘어설 정도다.

축구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경기당 2.7회 드리블을 시도해 1.6회를 성공시키고 있다. 이는 라리가 전체에서도 9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1위는 경기당 3.1회를 성공하는 비니시우스(레알 마드리드)다.

지난 시즌 이강인은 경기당 드리블 성공 1.3회로 라리가에서 42위에 그쳤다. 지난 시즌 일본 구보 다케후사는 1.4회로 이강인보다 높은 26위였지만 올 시즌에는 0.9회로 55위로 처져 있다.

이 같은 실력 향상은 부득이했던 측면이 있다. 자기 진영에서 공을 따내 역습을 구사하는 마요르카 축구 스타일에 맞추기 위해 이강인이 드리블 질주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격 전환을 주도할 뛰어난 선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강인 본인이 직접 드리블로 상대 진영까지 공을 운반하고 있는 셈이다. 이강인에게 의존하는 마요르카식 축구가 이강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양새다.

공교롭게도 이강인의 드리블 실력 향상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인 위르겐 클린스만에게도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드리블에 능한 선수를 선호한다. 독일 매체 빌트지에 따르면 클린스만 감독은 카타르월드컵 기술연구그룹에서 일할 당시 "경기가 팽팽하게 진행될 때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가 필요하다. 훈련을 통해 드리블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뉴시스

화순군청 복싱 주태웅, 국가대표 최종선발 '쾌거'

남자 +92kg급 3:2 판정승으로 우승…항저우아시안게임 출전권 획득

화순군청 복싱팀 주태웅(+92kg)이 '2023년 복싱국가대표'에 최종 선발되며 낭보를 전해왔다.

전라남도복싱협회(회장 유성수)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경남 김해(김해문화체육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대표 최종선발대회"에서 화순군청 소속 주태웅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며 국가대표에 최종선발, 태극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주태웅은 +92kg급에 출전, 준결승에서 서순종(성남시청)에 5:0 판정승으로 결승에 진출, 결승전에서 김도현(남해군청)을 만나 치열한 접전 끝에 3:2 판정승으로 승리, 최종 우승을 하며, 생애 첫 국가대표 타이틀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티켓을 획득했다.

전남은 1·2차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일찌감치 국가대표를 확정 지은 임애지(화순군청), 박초롱(화순군체육회)에 이어 주태웅(화순군청)까지 국가대표에 승선하며 전남 소속 복싱선수 3명이 태극마크를 달았다.

박지선 화순군청 감독은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 화순군과 화순군체육회의 많은 지원으로 좋은 성과를 낸 것 같다"며 "올해도 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력을 펼쳐 전남복싱과 전남체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복싱협회 유성수 회장은 "3명의 선수들이 우수한 경기력으로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전남복싱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펼쳐주길 바란다"며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순천시청 유도 김지정, 순천만컵유도 女 63KG급 '석권'

전남 유도 선수단(일반부) 현재까지 금 1, 동 5개 획득

순천시청 유도팀 선수들이 입상을 기념하고 있다. (왼쪽부터)김양호 감독, 김지정, 양서우, 박다솔, 심상진 부회장, 문선귀 순천시유도회 전무이사

김지정(순천시청)이 2023 순천만국가정원컵전국유대회 겸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여자 -63kg급 개인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태극마크'를 달았다.

전남유도회(회장 임종안)은 13일부터 18일까지(6일간) 개최되는 "2023순천만국가정원컵전국유도대회 겸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순천시청 김지정 선수가 여자부 개인전 -63KG급에 출전 1위를 차지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김지정은 1회전에 한서영(용인대)에 지도승, 2회전 전은빈(경남도청)에 지도승, 3회전에 이지현(안산시청)에 지도승, 연달아 지도승을 하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전에서 김혜빈(고창군청)을 외깃 업어치기로 한판 승을 거두며 결승에 올랐다.

김지정은 결승전에서 신채원(용인대)을 만나 지도를 한 개씩 받으며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

김지정이 먼저 절반을 획득했고, 신채원이 연달아 지도 2개를 받아 지도승을 거두며 금메달과 함께 "태극마크"를 획득했다.

이어, 전남유도 선수단 다수가 메달을 획득하며 낭보를 전했다.

순천시청 박다솔(-57kg)과 양서우(-52kg), 신지영(+78kg)이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고, 여수시청 김영성, 정다빈(이상·100kg)이 함께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양호 순천시청 감독은 "이 같은 경사에는 순천시청의 물심양면 아낌 없는 지원과 선수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의 말과 함께 "남은 경기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金 2개에 그친 韓쇼트트랙…22년 만에 안방서 최악 성적

세계선수권 금메달 2개, 2001년 전주 이후 최악

내년 네덜란드서 개최…반전 계기 마련 절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세계선수권에서 22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공교롭게도 기존 최저 금메달을 기록한 대회 역시 한국에서 열린 대회였다.

지난 12일까지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3 KB금융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남자 에이스 박지원(서울시청)의 1000m, 1500m 2관왕 덕에 금메달을 2개 따는 데 그쳤다.

여자 에이스 최민정이 1000m와 1500m에서 네덜란드 선수들에 밀려 은메달에 그쳤다.

더 아쉬운 대목은 그간 강세를 이어왔던 계주 종목에서 금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했다는 점이다. 남자 5000m 계주에서는 중국과 이탈리아에 밀려 동메달, 여자 3000m 계주에서는 네덜란드에 밀려 은메달에 그쳤다. 새로 만든 2000m 혼성 계주에서는 메달권에 들지도 못했다. 대표팀 선수들의 기량이 하향평준화된 것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세계선수권 금메달 2개는 22년 만에 받아 든 최악의 성적표다. 2001년 전북 전주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당시 한국은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에 그쳐 금메달을 수확하지 못했다.

(왼쪽부터) 심석희, 박지원, 김길리

전주대회 이후 김동성, 최은경, 안현수, 진선유, 이호석, 곽윤기, 박승희, 노진규, 심석희, 최민정, 황대헌, 린샤오쥔 등 스타들이 세계선수권에서 한국에 금메달을 적어도 3개 이상 가져다줬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박지원만이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였을 뿐 다른 선수들은 부진했다.

한국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만 비교해도 이번 대회 성적은 전주대회 이후 최악이다. 2008년 강릉대회에서 금메달 4개, 2016년 서울대회에서 3개를 수확한 바 있다.

이번 서울대회 금메달 2개는 한국 쇼트트랙 명성에 걸맞지 않은 성적이다. 한국은 역대 쇼트트랙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115개, 은메달 83개, 동메달 71개로 무려 269개의 메달을 땄다. 2위인 중국은 총 158개 메달을 가져갔다.

세계선수권 금메달만 따져도 한국이 압도적이다. 한국이 115개인 반면 2위인 중국은 65개에 불과하다. 한국이 2배에 가까운 금메달을 따낸 셈이다.

그런데 이번 서울대회에서는 명성에 금이 갔다. 남자 대표팀에서는 박지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선수들의 기량은 세계 정상권에 근접하지 못했다. 여자 대표팀의 경우 최민정이 부상 여파 등으로 네덜란드 스휠팅에게 밀렸다. 기대를 모았던 김길리를 비롯해 김건희와 심석희도 메달권에 근접하지 못하는 기량을 보여줬다.

내년 대회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이번 대회 여자부를 휩쓴 네덜란드가 자국 로테르담에서 세계선수권을 주최한다. 여자부에서 또 한 번 네덜란드의 안방 잔치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민정의 피로 누적과 김길리의 기복, 최민정-심석희 간 갈등으로 인한 팀워크 악화 등 문제가 있다.

남자부는 상황이 조금 낫다. 박지원이 건재한 가운데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대헌이 대표로 복귀할 경우 박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다.

뉴시스

수영 황선우 "세계선수권 포디움·AG 기록 단축 목표"

호주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황선우(20·강원도청)가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따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기록을 단축해 좋은 결과를 얻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호주 전지훈련을 마치고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황선우는 인터뷰에서 "후쿠오카 세계선수권에서 또 한 번 포디움에 오르고 싶다"고 밝혔다.

황선우는 또 "가장 중요한 아시안게임에서는 제 개인 종목과 단체전 종목 모두 기록을 단축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황선우와 이호준(대구광역시청), 김우민(강원도청), 양재훈(강원도청)으로 구성된 경영 대표팀 내 항저우 아시안게임 특별전략 육성 선수단은 아시안게임 계영 800m 첫 금메달을 목표로 지난달 8일부터 최근까지 호주에서 전지훈련을 했다.

이들은 호주 경영 대표팀 지도자 출신 리처드 스칼스 감독의 지도를 받았다.

뉴시스